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2권 1호(2012년 6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푸른길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본관 6층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연희

운영위원 김화수, 이민경, 이희영,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희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김일환(성균관대),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신혜란(University College London), 이기영(부산대), 이동석(Hiroshima University), 이민경(대구대), 이소영(대구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홍인기(대구대)

편집간사 황지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2년 제2권 1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를 펴내면서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 이희영	1
이주노동자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대구시 달서구, 경북 경산시, 구미시를 사례로 / 권혁민	46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활동 공간에서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 최병두 · 박은경	84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주거·소비·여가공간을 중심으로 / 이혜경	133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황지민	174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 염미경	211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지리교육적 함의: 안산시 사례로 / 김미순	234
사회의 재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2009, 조너던 섹스 지음, 서대경 옮김, 말글빛냄) 서평 / 김선미	270
2011년 이주 인권연대 한·독 심포지엄 참가기 / 최영숙	275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2권 1호를 펴내면서

원주민의 눈에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나타나서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는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여기 이곳에 당도하게 된다. 이들은 간단히 결혼이나 취업, 또는 유학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게 된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제도와 중간 행위자들, 그리고 이들과 혼종적으로 연계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치게 된다. 자신들이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국제 이주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결혼 중개 업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밀수 상인이나 ‘사람 장사’를 하는 중간 브로커 등을 거치기도 하며, 결혼뿐만 아니라 입양이나 위장 결혼, 심지어 자신의 몸을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국경을 넘어 막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우회 경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입국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국경을 가로질러 여러 국가와 사회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생애사적인 시간적·공간적 경로는 다문화에 관한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희영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된 북한 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북한-중국-남한 사이의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탈북과 결혼이주 및 노동 이주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여성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탈북 후 국가 간 경계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단절과 위계를 ‘거슬러’ 이동하는 개인들의 힘든 생애사적 노력과 온갖 제도와 행위자들이 개입하여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구술사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 이주자들의 정체성이 결혼이주 또는 노동이주라는 이원화된 목적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한 탈북의 흐름과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내 입국하기 전에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만, 또한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여러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현재 정착한 곳에 거주하게 된다. 권혁민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주의 본국 상황과 이주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흡인-배출 과정을 기본틀로 하지만, 사회구조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행위에 초점을 두고, 이주자의 평생을 걸쳐 이루어진 생애이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의 연구는 이주노동의 취업과 관련하여, 출생지역, 해외 취업 전 거주지, 한국 취업 전 타국 취업 여부, 한국 취업 후 국내 이동 과정 전반에 걸쳐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입사경로를 제도적(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비공식적 브로커 이용), 한국 내 입국 후의 입사 경로(취업광고, 먼저 입사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구시 달서구와 구미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생애이동 과정과 더불어 이들의 노동조건과 정체성 등에 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생애적인 시·공간적 경로를 통해 일정하게 정착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선정된 낯선 장소에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타자들과 대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일단 일정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한 결심과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이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이주 목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공간 또는 장소를 우리는 '기본활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주자들의 가정,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캠퍼스는 바로 이러한 장소로,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병두와 박은경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기본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과 사회공간적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자나 이주노동자들은 기본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생활에 대해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자녀 양육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직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들은 실제 상당히 억압적이고 힘든 기본활동 공간의 생활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만족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에서의 편리성이나 복지제도, 노동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만족 정도가 단순 이주노동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생활이나 학업 관계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의사소통과 외국인 배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인 보다 본국인 친구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혜경의 연구는 최병두·박은경이 다룬 연구 주제, 즉 기본활동 공간의 바깥에 있는 일상 생활공간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위의 최병두·박은경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며 분석 대상의 외국인 이주자 유형도 동일하게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은 크게 주거공간, 소비공간, 여가공간으로 구분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주거공간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주거공간의 외부 환경에 비해 내부 규모와 쾌적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공간의 범위에 관해서는,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비교적 멀리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공간의 경우,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여가시간 자체가 적어서 여가공간이 매우 제한되고 소극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여행 및 관광이 자신들의 주요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여가를 위한 활동공간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러한 이주과정과 기본활동 공간 및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게 되지만, 이들의 활동은 또한 국내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면서도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 황지민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첫 사회경

험을 하게 될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년, 접촉경험, 고정관념과 편견, 다문화적 교사태도는 사회적 거리감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접촉경험이 적을수록, 고정관념과 편견이 클수록, 다문화적 교사태도가 낮은 수준일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성별, 생활수준, 부모의 다문화적 양육태도, 민족정체성의 차이는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 외국인 이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이들과 친밀한 사회공간적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원만하게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국가나 대학 등에서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염미경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강좌를 통해 시행되는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제주대학교에서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다문화이해 강좌가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문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물론 교과목 수강 동기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학 내 혹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문화 관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미순의 연구도 비슷하게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지리교육의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안산시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은 외국인 이주자 자녀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를 보였으며, 지리과목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의 본국 경제와 문화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며, 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들의 장래 희망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10학년 과정에서 '문화 경관의 다양성' 단원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접목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논문들 외에, 이번호 서평으로는 영국 런던의 유대인 대학 총장 이자 신학자인 조너던 섹스가 저술한 『사회의 재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서대경 옮김, 2009)를 김선미가 평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 책은 차이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세계화 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공공선의 추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연구 논문과 서평뿐 아니라 2011년 11월 3일에서 8일 사이 대전에서 '한국과 독일 이주민의 삶, 정책, 그리고 운동'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이주인권연대가 주최한 한독 심포지움과 이에 이은 관련 단체들의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영숙선생의 참가기를 게재하고 있다. 최영숙 선생님은 6·15 유럽지역 공동위원회 공동대표이며 한민족 유럽연대 위원장으로, 파독간호사로 독일 병원의 근무와 여러 재독 한국여성모임 활동을 통해 직접 다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다문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는 점에서, 참가기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 즉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 입국 전 및 그 이후에도 겪게 되는 생애사적 이주 경로에 관한 연구,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기본활동 공간 및 일상생활 공간에 관한 연구, 이들에 대해 원주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저서의 서평, 심포지움의 참가기 등은 우리나라, 나아가 현대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겪게 되는 상호 타자성이나 이질감을 해소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모든 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12년 6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